







(20-1을 보여주며)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이 거의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뒤에도 ‘바사(페르시아)’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를 가리키며) 그중에는 ‘느헤미야’도 있었지요.

느헤미야는 바사 왕의 궁전에서 일하는 높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남유다 백성 ‘생각풍선’을 가리키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을 심하게 괴롭히고, 예루살렘 성은 불에 타서 무너졌다는 이야기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매우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성 ‘생각풍선’을 가리키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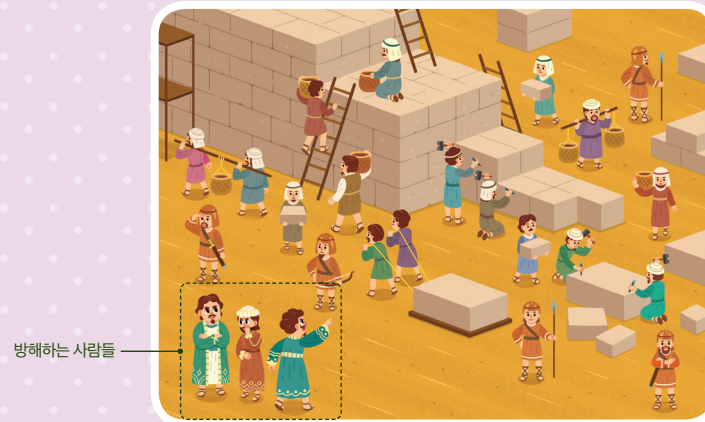
느헤미야는 꼭 성을 다시 쌓아야겠다고 마음먹고는, 바사 왕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왕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허락해주었어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20-2를 보여주며)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한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쪽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 백성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읍시다!” (느 2:17)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남유다 백성은 다 함께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서로 도우며 힘을 모으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각자 집에서 가까운 성벽부터 차곡차곡 쌓아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남유다 백성을 도와주셨지요.

(‘방해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그러자 이웃 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남유다 백성에게 겁을 주며 방해했어요.

그러나 남유다 백성은 성 쌓기를 그만두지 않았어요.

어떤 백성들은 계속 성을 쌓고, 어떤 백성들은 성 쌓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말이에요.

성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20-3을 보여주고, ‘성벽’을 가리키며)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었어요.

(놀란 목소리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쌓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남유다 백성이 힘을 모아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이 함께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자, 방해하던 다른 나라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 떨면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이 완성되었구나!” (느 6:16 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해요.